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최 현 옥

대불대학교 대학원

황 보 명*

대불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요약》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월 소득수준, 아동의 연령, 가족형태)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여성 24명과 그 자녀 24명(생활연령 M=5세 2개월, SD=9.08개월, 남아 10명, 여아 14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그림어휘력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를 이용하여 수용언어능력 측면에서 수용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을, 표현언어능력 측면에서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은 그림어휘력검사, 아동용 한국판보스턴이름대기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를 이용하여 수용언어능력 측면에서 수용어휘력을, 표현언어능력 측면에서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함께 기타 관련변인들이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어휘력은 4세 ~ 4세 5개월 수준으로, 구문의미이해력은 5세 수준으로 나타났고, 표현어휘력 또한 5세 수준이었으며 자음정확도는 94.98%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은 4세 ~ 4세 5개월 수준, 자음정확도는 89.02%로 생활연령에 비교하여 1세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자음정확도는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표현어휘력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어휘력과는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표현어휘력은 아동의 표현어휘력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문의미이해력은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기타 관련변인들 중에는 아동의 연령이 아동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수용어휘력, 자음정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 이해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

* 교신저자(bmhwang30@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이제 다문화가정은 우리의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39,69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11.9%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농촌 총각들의 국내 결혼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외모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 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배경,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현경, 서현, 김동례, 2009).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 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므로 인하여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고,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 수준이 낮을 경우 그 자녀 또한 한국어 습득이 어려워 언어 발달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을 살펴본 최근 연구들은 일반가정의 또래 아동들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발달지체 가능성이 있으며(정은희, 2004), 수용어휘력, 수용언어능력, 표현언어능력이 낮게 측정되었다(박상희, 2006)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생활연령이 동일한 일반가정 자녀들에 비하여 낮은 음운인식능력(양성오, 황보명, 2009)을 보이며 전체적인 조음 명료도가 낮게 나타났다(Dodd, Holm & Wei, 1997).

아동들의 초기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혜련, 이귀옥(2005)은 중국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발달 상관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언어태도 및 아동들의 인지발달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전효정, 이귀옥, 박혜원(200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과 같은 변수들이 아동의 초기 언어 습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영유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Tardif et al., 1997; Bernstein et al., 1998; 장유경 외, 2004) 다문화가정과 같이 어머니의 한국어 자극 제공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관련변인들이 그 자녀들의 언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수정 외(2008)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이나 교육연수, 한국 거주 기간 보다는 어머니의 표현어휘능력이라고 하였으며, 황상심(2008)은 어머니의 구문의미이해력 및 어휘표현력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이 서로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 중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타 관련변인들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능력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을 수용언어능력(수용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과 표현언어능력(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들의 한국어능력 즉, 수용언어능력(수용어휘력)과 표현언어능력(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타 관련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 소득수준, 아동의 연령, 가족형태를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과 아동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24명(남 10명, 여 14명)과 이 아동들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다문화가정 이주여성) 2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생활연령은 3세 ~ 6세이며 부모나 교사로부터 감각, 인지, 사회성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로 연령 분포는 20대 25%, 30대 70.8%, 40대 4.2%였다.

<표 1>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결과이다.

<표 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징

구 분		세부항목	빈도	비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변인	출신 국가	일본	4	16.7
		베트남	9	37.5
		필리핀	7	29.2
		중국	4	16.7
	연령	20대	6	25.0
		30대	17	70.8
		40대	1	4.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2	8.3
		중학교 졸업	5	20.8
		고등학교 졸업	8	33.3
		대학 졸업	9	37.5
	이주 전 한국어 경험	예	15	62.5
		아니오	9	37.5
	이주 후 한국어 교육 경험	3 ~ 6개월 이하	6	24.9
		6 ~ 12개월 이하	4	16.7
		1 ~ 2년 이하	13	54.2
		기타	1	4.2

기타 관련 변인	가족 형태	부부 + 자녀	10	41.7
		시부모 + 부부 + 자녀	4	16.7
		시모 + 부부 + 자녀	9	37.5
		기타	1	4.2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	4.2
		100 ~ 150만원 이하	6	25.0
		151 ~ 200만원 이하	8	33.3
		201 ~ 300만원 이하	6	25.0
		301 ~ 400만원 이하	3	12.5
	납편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	4.2
		중학교 졸업	3	12.5
		고등학교 졸업	15	62.5
		대학 졸업	5	20.8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orean-Boston Naming Test; 이하 K-BNT, 김향희, 나덕렬, 1997),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이하 U-TAP, 김영태·신문자, 2008),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 그림어휘력검사(김영태 외, 1995),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orean-Boston Naming Test for Children, 이하 K-BNT-C, 김향희, 나덕렬, 2007)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언어능력은 수용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수용어휘력은 그림어휘력검사 실시 결과 산출된 원점수를 이용하였고, 구문의미이해력은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실시 결과 산출된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표현언어능력은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어휘력은 K-BNT 실시 결과 산출된 원점수를 이용하였고, 자음정확도는 U-TAP 실시 결과 산출된 %를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언어능력은 수용어휘력으로만 살펴보았는데, 그림어휘력검사 실시 결과 산출된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중 표현언어능력은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어휘력은 K-BNT-C 실시 결과 산출된 원점수를 이용하였고, 자음정확도는 U-TAP 실시 결과 산출된 %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및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항(출신국가, 나이, 결혼 기간, 과거 직업, 한국 거주기간, 교육 수준, 가족 형태, 월 소득 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나이, 직업)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와 교육 정도에 대한 문항(이주 전 한국어 교육 경험, 이주 후 한국어 경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자신의 평가, 한국어 수준에 대한 남편의 평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남편의 관심 정도), 그리고 자녀에 관한 문항(교육 기간 이용 여부, 이용 기간, 자녀 수)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절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복지관을 통하여 학령 전기 자녀(3세 ~ 6세)를 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중 자신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선별하였다. 3 ~ 6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3세 이후부터는 구문적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며,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비하여 언어발달에서 다소 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자녀들 중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서 감각, 인지, 사회성에서 문제가 없는 아동들을 선별하고, 이 아동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언어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언어검사는 해당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관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연구자가 1대 1의 편안한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가족의 동의하에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의 조용한 환경에서 1대 1의 편안한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언어검사 과정은 모두 촬영 및 녹음을 하였는데,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아동 개인당 소요되는 총 검사 시간은 약 40여분 정도였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설문지와 검사 시간을 모두 합하면 총 검사 시간 역시 40여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처리

통계적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인 어머니와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 각각 언어검사를 실시하여 산출된 한국어능력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언어능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수용어휘력은 그림어휘력검사 실시결과, 원점수 120점 만점에 평균 37.63으로 4세에서 4세 5개월 아동의 수용어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문의미이해력은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실시결과 원점수 평균 24.95점으로 5세 아동의 평균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표현언어능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현어휘력은 K-BNT 실시결과 원점수 평균 24.08점으로 생활연령과 교육년수에 해당하는 성인의 점수가 52.37점인데 비하여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자음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U-TAP 실시결과 평균 자음정확도는 94.98%로 나타났다. 이는 U-TAP 실시 요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세 여아의 평균 자음정확도가 96.26%이고 -1SD가 92.42%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5세 여아의 평균과 -1SD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기술통계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변인	평균±표준편차		변인	평균±표준편차	
수용언어능력	수용어휘력	37.63±17.310	수용언어능력	수용어휘력	40.13±22.329
	구문의미이해력	24.95±9.938			
표현언어능력	표현어휘력	24.08±11.189	표현언어능력	표현어휘력	21.58±6.070
	자음정확도(%)	94.98±4.014		자음정확도(%)	89.02±9.66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언어능력은 수용어휘력으로만 살펴보았는데, 그림어휘력검사 실시결과 원점수 평균이 40.13으로 4세에서 4세 5개월 아동의 수용어휘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평균 생활연령이 5세 2개월인데 반하여 수용어휘력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그림어휘력검사 원점수는 4세에서 23.63 ± 18.85 , 5세에서 47.92 ± 18.52 , 6세에서 49.75 ± 22.88 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 중 표현언어능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현어휘력은 K-BNT-C 실시결과 원점수 평균 21.58점으로 일반가정의 4세에서 4세 5개월 아동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K-BNT-C 원점수는 4세에서 16.38 ± 2.13 , 5세에서 22.5 ± 5.62 , 6세에서 29.25 ± 1.39 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의 평균 생활연령이 5세 2개월인데 반하여 표현어휘력이 1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음정확도는 U-TAP 실시결과 89.02%로 나타났다. 이는 5세 아동의 평균 자음정확도가 97.46%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SD(91\%)$ 이하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음정확도는 또래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자음정확도를 살펴보면, 4세는 $84.47 \pm 6.69\%$, 5세는 $90.32 \pm 6.98\%$, 6세는 $94.18 \pm 6.69\%$ 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수용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 어능력	수용어휘력	.234	.304*	.331*	.313*
	표현어휘력	.478**	.301*	.478**	.603**
	자음정확도	.400**	.562**	.166	.603**

* $p < .005$, ** $p < .001$

상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수용어휘력은 그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문의미이해력은 자녀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표현어휘력은 그 자녀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음정확도는 자녀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련변인들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표 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234	-.014	.114
아버지의 교육수준	.307*	-.039	.317*
가족의 월 소득수준	.411**	-.009	.058
아동의 연령	.628**	.765**	.539**
가족의 형태	-.170	-.008	-.138

*p<.005, **p<.00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용어휘력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족의 월 소득수준, 아동의 연령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어휘력은 아동의 연령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음정확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동의 연령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보다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자음정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수용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고찰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인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들(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족의 월 소득수준, 아동의 연령, 가족의 형태)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을 표준화 언어검사를 통하여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수용언어능력은 4 ~ 5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언어능력 또한 5세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어 언어능력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은 생활연령에 비하여 1세 정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자음정확도는 생활연령이 동일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2SD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이 일반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과 비교하여 낮다고 보고한 정은희(2004), 박상희(2006), 박지윤(2007), 황상심(2007), 이수정 외(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령 전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전반적인 언어능력의 발달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언어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수용어휘력은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와 상관이 있으며 구문의미이해력은 자녀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와 모두 상관이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표현어휘력은 자녀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과 상관이 있었으며 자음정확도는 자녀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와 모두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인 어머니의 표현어휘력이 그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상관이 있다고 한 이수정 외(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구문의미이해력 및 표현어휘력이 그 자녀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한 황상심(200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즉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 ~ 5세 수준에 해당하는 제한된 한국어능력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사용하는 어휘 수준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수용어휘력, 구문의미이해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 모두는 특히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상관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전반적인 한국어능력이 특히 자녀의 표현어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능력과 기타 관련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들의 생활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언어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형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수정 외(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 수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대부분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 분포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는 이수정 외(2008)와 황상심(200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교육년수에 대한 제한된 분포로 인하여 어머니 교육년수 변인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그 자녀의 언어능력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수용어휘력과 자음정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아동의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 이귀옥 외(200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귀옥 외(2003)는 소득수준 역시 아동의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월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용어휘력 간에 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표현어휘력과 가족의 월 소득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수정 외(200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황상심(2007) 또한 가정 소득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가족의 형태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족 형태가 부부+자녀, 시모+부부+자녀에 해당하여 그 분포가 매우 좁은 범위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부모가 계신 것에 대한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취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이주여성인 어머니 변인과 관련변인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4~5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도 4세 수준으로 생활연령에 비하여 많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중 구문의미이해력과 자음정확도는 자녀의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자음정확도와 상관이 있었으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수용어휘력은 자녀의 표현어휘력과 자음정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표현어휘력은 자녀의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과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은 자녀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능력과 상관이 있는 관련변인들로는 아동의 연령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생활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월 소득수준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능력과 다소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이 3세부터 6세까지로 그 분포가 너무 넓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연령대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능력 발달을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대상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즉 출신국가는 베트남과 필리핀인 경우가 많고 연령은 대부분이 30대이며 교육수준 또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많은 등 변인 중 특정한 요소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변인에 대한 수적인 비율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실상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성격, 제시하는 언어모델의 양과 질적인 측면, 형제 관계, 또래 관계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수, 아동의 출생순위, 교육기관 이용 기간, 교육기관 내 교사나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형태 등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능력이 그림어휘력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 K-BNT, U-TAP 등 몇 개의 언어검사 결과로 대표된다고 설명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언어검사와 자발화 표본 분석과 같은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한국어능력을 나타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국어 수용어휘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그림어휘력검사는 2세에서 8세 11개월까지 아동들의 수용어휘력을 평가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수용어휘력 평가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적용연령이 적합하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생활연령으로 인한 생활어휘 습득과 같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언어능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한국어능력이 학령 전 수준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수용어휘력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수용·표현어휘검사와 같이 성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검사들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영태, 신문자 (2008).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향희, 나덕렬 (1997).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orean-Boston Naming Test; K-BNT)**. 서울: 학지사.
- 김향희, 나덕렬 (2007).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orean-Boston Naming Test for Children; K-BNT-C)**. 서울: 학지사.
- 박상희 (2006).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제14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343-348.
- 박지윤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양성오, 황보명 (2009).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37-56.
- 이귀옥, 이해련 (2004). 중국 조선족 아동의 초기 다단어 발화의 의미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7, 75-89.
- 이귀옥, 전해정, 박혜원 (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 1-14.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현경, 서현, 김동례 (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1-24.
- 장유경, 임현정, 박금주 (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 105-120.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통계청 (2006). **인구 통계 연보**. 서울: 통계청.
- 황상십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Berstein, M. H., Haynes, M. O., & Painter, K. M. (1998). Sources of child vocabulary competence: a multivariate model.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367-393.
- Dodd, B., Holm, A. & Wei, L. (1997). Speech disorder in preschool children exposed to Cantonese and English. *Clinical Linguistics and Pathology*, 8, 291-302.
- Tardif, T., Shatz, M., & Naigles, L. (1997). Caregiver speech and children's use of noun versus verbs: comparison of English, Italian, Mandarin. *Journal of Child Language*, 24, 535-565.

A Effects of Mother'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y

Choi, Hyun-Wook

Graduate School, Daebul University

Hwang, Bo-Myung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 Audiology, Daebu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variables(mother's Korean abilities and association variables) related to Korean abilitie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4 children(mean of chronological age: 5years 2month and boy 10, girl 14) and 24 their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y. We used for all subjects the questionnaire and formal language tests to identify variab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abilitie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very low. And the Korean abilitie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lower than that of children in single-cultural family. Second, the Korean abilities(receptive vocabulary ability, expressive vocabulary and percent of correct consonant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in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Korean abilities(understanding about syntactic meaning and percent of correct consonants) of mothers. Third, the chronological age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were in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Korean abilities(understanding about syntactic meaning and percent of correct consonant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Korean abilities, language development

논문 접수: 2009. 11. 5 심사 시작: 2009. 11. 13 게재 확정: 2009. 12. 18

